

#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정치를 바란다

폭발적 인기 끄는 「YS는 못말려」를 읽고

김성태

경희대 교수·법학

장덕균 지음 「YS는 못말려」. 최근에 이 책이 큰 인기를 얻어 장안의 베스트셀러로 등장했다. 저자의 번득이는 기지가 담긴 이 정치 풍자집의 재담이 호사가의 짹짹한 안주거리가 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그간 금지시된 권력과 정치판의 상황을 별 거리낌 없이 소재로 삼고 있으며, 등장인물인 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 모두가 실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예는 적지 않은데, 독일의 현직수상을 대상으로 한 「콜수상의 웃음」이라든가 프랑스의 정치풍자 전문신문인 「르 까냐르 앙쉐네」 등이 유명하다. 미국에도 다양한 정치풍자언론이 있으며, 과묵하여 아직 읽어보지는 못하였으나 클린턴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퍼스트 레이디 힐러리여사를 추측하는 정기간행물이 출간될 정도이다. 이 간행물의 발간을 기획하는 시기에 따르면, 「계간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이 간행물이 「소비자물가지수(CPI)」처럼 「클린턴침실지수(CBI)」를 통해 새 대통령부부의 결혼생활을 과학적으로 점검하고, 그것이 미국정치와 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 독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이 잡지의 기획자는 이미 부시정부의 부통령인 케일을 조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삼았던 「계간 덴 케일」지의 발행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바로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는 이런 익살을 내놓고 즐길 수 없었다. 김영삼대통령의 문민시대를 과거의 정권과 구별지어주는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 책의 폭발적 인기는 그간의 정치비판 갈등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다. 결국 정치현상을 가식없이 속시원히 풍자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사회의 민주적 진화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판별하는 잣대가 될 수 있는 셈이다.

## 성난 얼굴의 권력

5·6공 당시에 이런 부류의 우스개소리가 향간에 더러 떠돌아다니기는 했었다. 당시의 현직 대통령을 돌대거리로 놀리던 사람이 구속되었는데, 그 죄명은 「국가기밀누설죄」라는 식의 비품이 그것이다. 원래 정치란 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를 다루는 일이며, 국민 누구나 나름대로의 식견을 가진 이상, 제아무리 폭압적 정치구도하에서도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나 사회심리적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든 표출되기 마련이다. 단지 그것이 서슬퍼런 권력



이 연출하는 공포분위기에 놀려 냉소적 블랙유머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런 책의 공개적 출판은 감히 엄두를 내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겁에 질려 너살을 부릴 겨를이 있었으랴.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치풍자에 대한 통제는 결국 정당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권력의 '제발지람' 현상으로서, 통치권자가 그만큼 국민 앞에서 당당하기 어렵고 여유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자는 자연히 불필요한 허세와 화려함으로 그 권위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지방순시를 하면서도 반드시 빨간 카펫만을 밟고 다니겠다고 고집하거나 세금을 물쓰듯 쓰며 뺨질나게 해외나들이를 한다든지, 청와대를 수백억씩 들여 단장을 하는 작태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상식에 비추어 국민민복과 전혀 무관한 이런 권위의 분장은 실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며, 국민에게 짐이 됨에 불과하다. 웃음과 여유를 보일 수 없는 권력은 안으로 썩어들어가, 결국 나라살림을 거덜내고 도덕적 타락상을 가져왔다.

## '못말려 현상'의 긍정적인 면

우리 국민은 한세대에 걸친 군부통치하에서 너무 삭막한 삶을 살아 왔다. 그 풍부했던 핵학정신도 점차 메말라버린 것이다. 이 책에서 펼쳐지는 저자의 재치에 모처럼 웃음을 자아내며, 독자들은 마치 삭막한 겨울까지 끝에 환히 핀 개나리를 보는 느낌을 갖게 된다. 작가는 「한권쯤 있어야 할」 책으로 겸손해 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모델로 한 이 최초의 정치개그집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1. 정치적 카타르시스: 별 낙도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에게, 정치코미디는 청량제 구실을 독특히 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정치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고 걱정하는 이도 있지만, 정치적 관심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에는 반대한다. 이런 소극적 태도야말로 군사문화의 잔재이다. 정치문제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인만큼, 이런 관심을 오히려 더 권장해야 마땅하다. 이 바쁜 세상에 남의 문제까지 걱정해주는 사람을 마다할 이유가 있으랴! 그리고 말이 많으니 말이지 사실 정치 이야기만큼 재미난 화제가 또 어디 있는가? 이 책이 웃음에 인색한 우리들의 굳어버린 안면근육을 풀어준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기에 적어도 보사부장관의 표창감으로 손색이 없겠다.

2. 정치의 인간화에 기여: 이 정치개그집은 권력자도 약점이 많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자명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이 대목에서 「YS는 못말려」는 공이 크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살벌한 정치판을 연출하고 갖은 특권적 불법을 저지르면서, 억지웃음을 지으며 '보통사람'으로 불리달라고 요구하는 6공시절과도 판이하게 다른 점이라 하겠다. 웃음은 쥐어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별 볼일 없는(?) 개그작가의 작품이지만, 이 책이 널리 회자함으로써, 절대적 권력·완전무결한 통치자로 위장하려는 태도는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법하다. 이 책이 불타나게 팔리는 사실을 뒤집어 새겨보면, 국민과 호흡을 함께 하지 못하는 권력의 등장을 이젠 더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간접적 신호로 해석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권력은 '웃기는 것'은 할 수 있을지언정, 국민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없다.

3. 세련된 비판자: 풍자는 비판의 승화된 형태이다. 농담이 「농도 짙은 진담」을 줄인 말이라는 우스개소리도 있듯이, 따라서 집권세력은 정치풍자로 꼬집힌 부분을 살펴보는 데에 인색해서는 안된다. 핵심을 벗어난 풍자에 웃을 국민은 없다. 그런 점에서 이런 유형의 정치풍자에 관한 독자·시민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여론수렴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권력자에 있어서 정치풍자가들은 무보수 「자원봉사자」이다.

4. 정치적 홍보효과: 현대는 자기PR시대이다. 정치인이나 정당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름을 파는 정치인직업의 속성상, 신문에 좋게 나는 것이 제일이고, 나쁘게 나는 것이 그 다음이요, 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쁘다는 속설은 일면 진리이다. 일전에 신문만화가 청와대에 초대해 각별히 대접을 한 점으로 미루어, 김대통령은 이 속설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코믹한 웃음에 실려 국민에게 접근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더없는 홍보요,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자신에 관한 정치풍자를 읽는 정치가는 행복하며, 이런 정치가를 가진 국민의 기분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그렇다면 청와대 공보수석은 작가에게 감사패 정도는 만들어 주어도 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 웃음을 주는 정치를 기다리며

이 책이 나온 후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기자에게 작가는 「경계를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이 책이 나와 불황의 늪에 빠진 출판경제부터 살려주셔서 고맙다」는 재담과 함께 「너그럽게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깎듯이 덧붙였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국민의 심부름꾼이요, 「공인(public figure)」인 이상, 그의 정치행태를 비롯한 정치현상 전반을 풍자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에 속하는 일이다.

원고출판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잘하면 50만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될테지만, 혹시 다시는 못보는 신세가 되는거 아니냐」며 작가와 출판사 사람들이 서로 웃었다고 한다. 더 이상 이런 책의 출판이 「모험사업」으로 취급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어쨌든 대통령의 넉넉함은 한 작가가 인세수입으로 쪼들리던 집안 「쟁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 건설의 토양이 되는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데도 상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남을 웃기는 것은 훌륭한 재주이다. 자신을 소재로 한 농담을 읽고 웃을 수 있는 여유는 더욱 훌륭한 정치가의 재능이다. 그러나 국민은 「웃길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넘어, 대통령이 직접 국민 모두에게 호뜻한 웃음을 선사해줄 것을 기대한다. 냉정 정치다운 정치, 개혁다운 개혁을 갈망한다. 코미디작가 한 사람만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면, 국민으로서 불공평하다.